

'97.1/4분기 석유제품 수급동향

- 통상산업부 석유수급과 -

- '97. 3월중 석유제품 소비는 67.1백만배럴로서 전년 대비 2.5% 감소하였으며, '97.1/4분기중 석유제품 소비는 204.0백만배럴로서 전년대비 0.4% 감소함.
- 최근 매년 10% 이상의 소비 증가율을 보이던 석유제품 소비가 1/4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감소를 기록한 것은 85년(-5.27%) 이후 처음 있는 일임.
- * 일일 소비량 기준 : 0.68%증가 (96.1-3월:2.25백만B/D → 97.1-3월:2.27백만B/D)
- 휘발유의 경우, 97.3월중 소비량이 전년대비 7.5% 감소 함에 따라 97.1/4분기중에는 전년대비 0.2% 감소함
- 이와 같이 석유제품 소비 자체가 감소하는 것은,
 - 산업부에서 경기 둔화 및 에너지절약
 - 수송부에서 고유가 / 에너지 소비절약 정책에 따른 휘발유의 소비 감소와 경기 둔화에 따른 경유 소비 감소
 - 가정상업부에서 도시가스 보급으로 인한 소비의 둔화 때문으로 보임
- 한편, 96년중에 석유정제시설이 대폭 증설됨에 따라

생산이 증가하는데 비해,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가 둔화 됨에 따라 97.1/4분기중 석유제품 수출은 55.6백만배럴 (13.5억불) 로서 전년동기보다 90.8% (금액 기준 106.3%) 증가함

- 1/4분기중 석유제품 국내 수급실적을 분석해 보면,
 - 수요측면에서는 내수가 204.0백만배럴로서 산업부문의 소비둔화 및 수송, 가정상업부문의 소비 감소로 전년동기 소비증가율 9.6%에 비해 소비자체가 0.4% 감소함.
 - 수출은 정제시설 증설로 인하여 생산이 확대된 반면 국내 소비는 둔화됨에 따라 55.6백만배럴이 수출되어 전년동기보다 90.8%(금액기준 106.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공급측면에서는 생산이 226.6백만배럴로서 정제시설(620천B/D)증설가동과 정유사의 가동을 상승으로 전년동기보다 32.6% 증가 하였으며, 수입은 증설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와 중질유분해시설 및 등·경유 탈황시설의 증설가동으로 등유 및 저유황경유의 수입량이 크게 줄어들어 전년동기보다 29.6%(금액 기준 14.6%) 감소하였음.

○ 석유제품의 소비실적을 부문별, 유종별로 보면
 - 부문별로는 산업부문이 석유화학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에서 산업경기의 부진으로 산업연료유 소비가 감소하여 3.2%의 증가에 그쳤으며, 수송부문은 해상 및 항공연료유의 소비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도로 수송용 화물수송의 물량감소로 화물차량용 유류소비는 큰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동기보다 3.5% 감소하였음.

가정상업부문은 도시가스 보급확대 및 날씨영향 등으로 2.2% 감소하였으며, 발전부문은 2월 대체발전으로 인한 유류(경유, B-C유) 소비증가로 전년동기보다 5.1% 증가하였음.
 - 유종별로는 휘발유가 고유가정책, 산업경기의 부진에 따른 영향 및 에너지소비절약 등으로 인하여 전년동기보다 0.2% 감소하였으며, 등유는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중 농어촌 지역의 유류난방시설 증가로 인한 소비량 증가와 일부 경유로부터의 대체수요로 인하여 전년대비 3.5% 증가함.

경유는 산업경기 하향에 따른 산업연료의 소비가 둔화되고, 수송화물차량용 소비가 줄어들면서 11.0%가 감소하였으며, B-C유는 2월중 대체발전 및 선박용 연료유의 소비증가로 인하여 3.0% 소폭 증가하였음. ☯

참고자료

연도별 석유제품 내수추이

(단위 : 백만배럴)

	97. 1~ 3월		1일 평균소비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1985	45.5	-5.27	0.51	4.22
1986	49.3	8.30	0.55	8.30
1987	54.0	9.56	0.60	9.56
1988	63.0	16.65	0.69	15.37
1989	74.2	17.71	0.82	19.02
1990	91.3	23.07	1.01	23.07
1991	107.9	18.26	1.20	18.26
1992	138.0	27.81	1.52	26.40
1993	156.2	13.25	1.74	14.51
1994	168.8	8.05	1.88	8.05
1995	186.9	10.68	2.08	10.68
1996	204.8	9.62	2.25	8.42
1997	204.0	-0.43	2.27	0.68

* 97년은 96년에 비해 2월이 하루 적음

석유제품 소비실적

(단위 : 백만배럴, %)

	1996				1997			
	3월		1~3월		3월		1~3월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총 계	68.9	16.1	204.8	9.6	67.1	-2.4	204.0	-0.4
산업수송	25.4	14.5	73.5	8.9	26.2	3.3	75.8	3.2
가정상업	18.9	20.8	51.2	11.3	17.7	-6.3	49.4	-3.5
공공발전	16.7	23.2	55.2	12.5	15.1	-9.6	53.9	-2.2
가스제조	1.2	26.7	3.6	16.0	1.0	-16.2	3.1	-12.5
휘발유	5.4	-4.1	17.2	3.3	6.1	12.3	18.1	5.1
등유	1.3	-6.8	4.2	-8.4	1.1	-17.1	3.6	-15.3
경유	6.1	36.0	15.8	16.2	5.6	-7.5	15.8	-0.2
빙커C유	8.6	35.0	29.7	19.0	7.7	-10.4	30.7	3.5
나프타	17.5	22.4	50.9	13.8	15.8	-9.9	45.3	-11.0
L P G	15.2	1.2	44.5	-0.9	15.4	1.1	45.9	3.0
	12.5	17.5	36.4	12.5	13.4	7.7	38.7	6.3
	6.5	4.9	20.5	3.2	6.4	-1.3	20.3	-0.8

참고자료

석유제품 수급총괄

(단위 : 백만배럴, %)

		수요				공급			재고
		내수	빙커링	수출	소계	생산	수입	소계	
1996	3월	68.9 (16.1)	3.5 (13.8)	10.1 (-0.6)	82.5 (13.6)	60.1 (5.4)	22.1 (20.0)	82.1 (8.9)	36.5 (-4.9)
	1~3월	204.8 (9.6)	9.3 (12.5)	29.1 (10.2)	243.3 (9.8)	170.9 (5.4)	78.1 (16.5)	249.0 (8.6)	36.5 (-4.9)
1997	3월	67.1 (-2.5)	3.8 (8.4)	20.1 (98.6)	91.0 (10.4)	77.1 (28.4)	16.9 (-23.4)	94.1 (14.5)	44.9 (22.8)
	1~3월	204.0 (-0.4)	10.8 (16.0)	55.6 (90.8)	270.4 (11.1)	226.6 (32.6)	55.0 (-29.6)	281.5 (13.1)	44.9 (22.8)

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일본석유산업

원매사, 주유소 개점 억제

최근 日本石油, 昭和셀石油 등 일본의 석유원매사는 자사의 계열주유소 신규개점을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재산이 맞지 않는 주유소는 폐쇄하고 있다. 일본석유는 최근 수년동안 「자사소유 주유소」가 백여곳 가까이 되었으나, '97년도에는 10곳 미만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또한 昭和셀石油도 '97년도의 폐쇄 예정인 계열주유소 수를 400곳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대비 2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같은 원매사들의 주유소 신규진출 선별·억제방침은 작년 여름 수입자유화조치 이후 다이에 등 異업종의 주유소업 진출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개원매사의 주유소

	1995	1996
일본석유	196(122)	124(243)
출광석유	141(82)	100(160)
코스모석유	130(115)	110(155)
재팬에너지	125(172)	89(241)
昭和셀	160(82)	107(199)
계	752(573)	530(998)

주) 괄호는 폐지수. 昭和셀 石油은 95년과 96년

원매사가 토지·건물을 제공하여 특약점에 리스한 전략점포인 자사 소유 주유소는 일본석유의 경우 금년도 신규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석유의 관계자는 「주유소경영이 재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점해도 소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폐쇄하는 계열주유소수를 배로 늘린 昭和셀石油은 금년 특약점소유 주유소를 포함한 전체 주유소의 개점을 100여곳 정도로 정리하여, 300곳 정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참고 : 도표참조)

이같은 원매사의 신규주유소 개점억제 방침은 작년 수입자유화조치 이전부터 휘발유가격이 붕괴되기 시작하여 금년 3월의 전국 평균가격(레골러 기준)은 리터당 106엔(석유정보센터조사)으로 근 2년 동안 15엔 떨어졌고 작년부터는 원유가 폭등과 엔저로 비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제품가격이 이를 따르지 못해 전국의 6만여개의 주유소가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다가 「셀프주유소」가 가까운 시일안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매사들은 신규 주유소진출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재산이 맞지 않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폐쇄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경제신문 '97.4.23)